

'25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번	일시	장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5-08	8.20	회의실	9/12	4	1	14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박양우·반수경·설제학·양지현·유한별·이경주·이미진·정인영·정희(9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원승연(경영본부장), 김민호(콘텐츠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8	2	1	1	12	0	12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분	수용	의견참고	반론	계
건수	12	0	0	12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관심 가지고 보도 바람	<뉴스투데이> 코리아 드림의 명암(8.28), “공동체의 소중한 이웃”·마음의 장벽을 넘어(9.9), <뉴스투데이> 불법체류자 퇴직금 요구 ‘빈발’(9.11) 등 방송 조치	'25.8
"	광주지역 비 피해 예방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람	<뉴스투데이> “반짝 관심 그칠까 두렵다”(8.27), ‘재난 대피’ 입법 추진·실효성 담아야(8.29), 재난 관련 흘림자막 상시 송출 등 방송 조치	"
"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지속적인 심층 보도 기대	<뉴스데스크> 광주 군공항 이전 찬성 여론 과반 넘어섰다(9.8) 등 방송 조치	"
"	호우 피해 등 계속 관심 가지고 보도 바람	<뉴스투데이> 수해 한 달 지났는데·복구 ‘사각지대. 여전(9.5), <뉴스데스크> ‘극한 폭염·폭우’ 전남 해수욕장 이용객 감소(8.31), 주택 9백만 원 소상공인 1천만 원(9.4), 불경기 침수까지·소상공인 ‘시름’(9.8) 등 방송 조치	"
"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 바람	<뉴스데스크> “여름엔 붐비고 겨울엔 썰렁”·전남 인구 전략은?(8.25), 화순 폐광 개발·‘기대 반 걱정 반’(8.31), 콘텐츠·교통 문제 고민·“홍보·관심도 부족(9.5), 돌아온 광주 대인야시장·오늘 개장(9.6), ‘사찰서 자고 순천만 거닐고’·달라진 세계유산축전(9.10), <뉴스투데이> 관광객은 늘고 예산은 없고(8.26), 섬박람회 D-1년 콘텐츠와 전략은?(9.5) 등 방송 조치	"
"	<시사용광로> 그래픽 자료 활용 등 통해 시청자에게 효과적인 전달 필요	보도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9.1)	"
"	전공의 모집 관련 등 지역 의료 현실 취재 바람	<뉴스데스크> 전대병원·조대병원 전공의 채용 ‘의료인력 숨통’(8.28) 전남의대 신속 설립 촉구·대학 통합은 속도(9.7) 등 방송 조치	"
"	AI 중심도시 관련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국가 AI컴퓨팅센터, “광주가 최적지”(9.1) “인프라 완비” 모두의 AI도시로(9.11), AICA 인공지능 집적단지 비전 선포식 생방송(9.11) 등 방송 조치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의회의 인물 편, 출연자 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섭외 필요	편성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9.1)	
"	우리 고유의 다양한 문화 소개 바람	<빛나는 나의 도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한일 사찰투어(9.3), <2025 남도 우리술 품평회>(9.2) 후원, 연중 캠페인 영산강 전개 등 방송 조치	
기타	네이버 뉴스 채널 입점, 지역사회 신뢰 강화 계기가 되기를 바람	관련 TF 구성 운영 및 유튜브 구독자 배가 등 대책 시행 중	
연예오락(시청자 의견)	<놀라운 세시> ‘왔구나 노래교실’ 코너, 강사, 리포터 등 노래 청취 불편함. 출연진은 해당 노래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편성 책임자와 프로그램 담당자 의견 전달 및 제작 시 의견 반영 권고 조치 (9.1)	
합계		1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보도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관심 가지고 보도 바람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관심을 두고 보도하겠음	○		
"	광주지역 비 피해 예방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람	폭우 피해 현장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해 관심을 두고 보도하겠음	○		
"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지속적인 심층 보도 기대	군공항 이전이 결론을 낼 때까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보도하겠음	○		
"	호우 피해 등 계속 관심 가지고 보도 바람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 일상화에 맞춰 지속해 보도해나가겠음	○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 바람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관심 기울이겠음	○		
"	<시사용광로> 그래픽 자료 활용 등 통해 시청자에게 효과적인 전달 필요	생방송에서 그래픽 자료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예측할 수 있는 주제와 관련해 풍부한 자료를 확보해 방송하겠음	○		
"	전공의 모집 관련 등 지역 의료 현실 취재 바람	의정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돼 지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보도하겠음	○		
"	AI 중심도시 관련 보도 바람	AI 2단계 사업 여비 타당성 면제를 비롯해 인공지능사업의 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교양	<빛나는 나의 도시> 의회의 인물편, 출연자 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섭외 필요	의견 내용을 사전에 더욱 자세히 검토하여 제작에 임하도록 하겠음	○		
"	우리 고유의 다양한 문화 소개 바람	문화와 예술,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방송하겠음	○		
기타	네이버 뉴스 채널 입점, 지역사회 신뢰 강화 계기가 되기를 바람	관련 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진행하면서 홈페이지 개편, 유튜브 구독자 배가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		
연예오락(시청자 의견)	<놀라운 세시> ‘왔구나 노래교실’ 코너, 강사, 리포터 등 노래 청취 불편함. 출연진은 해당 노래에 대	사전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청취자가 방송을 듣는 데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한 사전 준비 필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년 8월)

일시	2025년 8월 21일(목) 17시	장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	박양우 · 반수경 · 설제학 · 양지현 · 유한별 · 이경주 · 이미진 · 정인영 · 정희 위원(9명)	
	회사	김낙곤 사장, 원승연 경영본부장,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4명)	

■ 회의 내용

- 박양우 위원장 : -무더운 여름이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활동하고 계시는 해당 분야는 물론 광주와 전남 지역민을 대변하여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시리라 믿는다. 사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8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한 달 만에 또 뵙는다.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 무더운 여름에 건강하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다. 광주MBC는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챙기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오늘도 제시해주신 의견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방송에 반영할 것이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박양우 위원장 : -그럼 콘텐츠본부와 보도본부 순으로 보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를 바란다.
- 김민호 콘텐츠본부장 : -주요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그동안 빛나는 아이나라 '금남로 키즈존', 광주, 전남 이색글램핑장, 전설의 가들 이준영 선수, 꿈을 실은 독서열차, K-한복, 잊힌 나라 마한 여행기를 쓴 정은영 작가, 광주 물놀이 스팟 등 다양한 지역 관련 내용을 방송했다. 한국전파진흥협회 지원을 받은 지역 MBC 8개 사 공동제작 라디오 <지역생존 AI 프로젝트-우리 고향, 부탁해!>를 방송 중이며, <광주MBC 라디오 칼럼>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기후 위기, 바다에서 답을 찾다, 인간 능력은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도로 작동되어야 한다, 유럽 도시의 기억, 그리고 광주의 풍경 등을 주제로 방송했다. 디지털 콘텐츠에서는 <더 프레지던트> 정세균 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녹화가 있었으며, 8월 12일 <우리 가락 우리 문화>는 국립남도국악원과 함께 녹화가 진행됐다. 9월 13일 전국 방송이 예정돼 있다.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 오월어머니합창단 인터뷰 촬영과 항저우의 광복절도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 <두근두근 동창회> 촬영을 계속하고, 남구청과 <굿모닝 양림> 공개방송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전파진흥협회와 AI 데이터 협약 후속 업무를 계속하며, 9월 초 <아시안 탭밴드3> 공동제작 관련해 일본 나고야TV, 베트남 SCTV 등과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김철원 보도본부장 : -네이버 포털 입점을 위한 TF 출범 및 홈페이지 부분 개편을 진행한다. 4년 전 입점에 실패했기에 타스크포스를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 다음카카오에 이어 네이버도 입점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점검하겠다. 다채롭고 심층적인 뉴스를 위해 출입처 개편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 뉴스 발굴을 계속해오고 있다. 한 걸음 더, 취재가 시작되자 코너 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시사용광로>에서는 7월 17일 김영록호, 전남도정 평가와 전망은?, 7월 24일 폭우 피해와 민생 회복, 자치구 상황은?, 7월 31일 새 정부 출범 두 달 평가와 여야 전당대회, 8월 7일 끊임없는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 방안은? 등을 주제로 방송했다. 주요 계획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주 대전환 특집 토론을 추진할 것이다. 이재명 출범 이후 갖게 될 광주지역사회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고, 광주MBC 창사 61주년 특집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가제 '다시 만난 세계'로 강연 4부작이다. 문형배 전 현재 소장, 유시민 작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등을 섭외할 예정이다.
- 박양우 위원장 : -본부장님 보고 사항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도 해주시고, 의견 제시해주길 바란다.
- 반수경 위원 : -<빛나는 나의 도시> 의회의 인물 편에서는 진행자와 게스트 두 분이 정당의 권리당원 모집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서 기존 권리당원 외에 이번 신규가입자가 15만이 추가된 결과를 두고 말하면서 표현 내용이 다소 거슬린 부분이 있었다. 예를 들면, 특정 정당 권리당원 가입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조건 따라다니는 시대는 지났다. 대부분 자의가 아니고 조직적으로 움직이죠.”라고 표현하자 진행자는 “그것이 사회적 문제죠” 과연 이게 사회적 문제일까? 또한, 권리당원 가입은 대부분 자의가 아니고 조직적으로 구성된다고 의원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실제 권리당원으로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인격적으로 모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스트로 출연한 의원 두 분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말할 때, 차별화된 다른 생각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상대 게스트의 말에 그저 동의하는 내용과 제스처 등이 마치 각본에 의한 것인 듯해서 시청자들에게는 신선감이 없게 느껴졌다. 서로가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시청자들 각자의 생각을 꺼내 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섭외가 필요하다.

- 설제학 위원 : -8월 7일 방송된 <시사용광로>는 7월 23일경 나주에서 있었던 지게차에 묵인 이주민 노동자 사건을 모티브로 이주민 노동자 인권 문제를 주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 사건은 단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침해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처지 바꿔 생각해 보자는 말이 있다.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함으로써 갈등을 줄이는 것이 이 말의 의미라 생각한다. 프로그램 내용 중 이주민들이 겪는 부당 대우의 유형과 그에 따른 대처 결과에 관한 설문 내용 소개도 시청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현 상황의 문제점을 자세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운영대 광주전남 이주노동네트워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실태에 관한 내용, 주종섭 전남도의회께서 말씀하신 계절 근로자 불법 브로커에 대한 설명도 일반 시청자 관점에서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어서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좋은 내용이었다. 이주민 노동자와 선주민 노동자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소아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게 있다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는 말을 넓게 생각했을 때 노동자와 함께 아름다운 상생을 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주, 지자체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분께서 패널로 함께 참여하여 좀 더 여러 처지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도해주길 바란다.
- 양지현 위원 : -8월 5일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는 책 ‘마한’의 저자 정은영 작가를 초대해 책에 관한 이야기와 마한의 흔적에 관한 이야기는 새롭고 흥미로웠다. 광주에도 이런 유적지와 마한유적체험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 같다. 여름 기획 특집으로 준비된 태양을 피하는 법은 전주에 실내 빙상장, 안경원, 모자박물관을 방문했다. 특히 모자박물관을 통해 살펴본 다양한 모자들과 요즘 인기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사자보이즈의 갓이 한국의 전통 모자라는 이야기는 한국 모자에 관한 관심을 두게 하는 내용으로 좋았다. 하지만 여름 기획 특집인 만큼 자외선 차단 역할의 모자에 관한 이야기인지 단순히 박물관에 관람용 모자를 보는 것인지 콘셉트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선글라스를 고르는 방법, 체형이나 상황에 맞는 모자의 선택 등 여름 기획 특집 태양을 피하는 방법의 콘셉트에 맞는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봤다.
- 유한별 위원 : -<뉴스데스크> 도심 곳곳 상습 물고르트...방재시설은 하세월 제하의 보도 의견이다. 우리 지역에 계속된 폭우로 인해 광주 신안교를 비롯한 광주 일대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 주민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지역에 상습 침수 구역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선제적 조치 또는 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들고 효과 없는 예방사업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 앞선다. 가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신안교 일대 우수저류시설이 부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후변화까지 고려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실행이 하루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광주MBC가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 <빛나는 나의 도시>에서 K-한복 헌터를 제목으로 다뤘다. 최근 K팝이나 드라마 등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도 우리 문화를 알릴 소재가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이를 해결해 준 아이템이었다. 전국 6대 시장 중 하나인 양동시장의 한복 거리는 50년이라는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 과거 한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우리 한복이 칼라나 소재가 이렇게 다양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해외에도 이를 널리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 콘텐츠 발굴이 필요한 상황인데 양동시장 한복 거리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광주 MBC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이다. 우리 고유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방송이 많아지길

바란다.

- 이경주 위원 : -네이버 포털 입점 TF 출범 관련 의견이다. 광주MBC의 네이버 포털 뉴스 입점 추진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 시청자뿐 아니라 전국 독자들에게 광주·전남의 주요 현안과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히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포털 뉴스 제휴는 단순한 노출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전국 단위 노출이 늘어날수록 기사 내용의 정확성, 공정성, 균형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입점 이후에도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광주·전남 고유의 목소리를 지속해 담아내고, 중앙 이슈 중심의 기사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주MBC만이 제공할 수 있는 심층 탐사보도와 지역 특화 기획, 지역민 인터뷰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강화하고, 방송 영상과 연계한 멀티미디어 기사로 포털 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포털 댓글, 설문, 제보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시청자의 의견이 뉴스 제작에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민이 직접 참여한 콘텐츠를 확대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신뢰를 더 높이길 바란다. 네이버 포털 입점이 단순한 채널 확장을 넘어 광주MBC가 지역 공영방송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광주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집중취재하고 후속 보도를 이어간 것은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사례다. 군공항 이전은 지역 안전·경제·환경에 직결되는 중대한 현안으로, 단순한 찬반 구도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아 시청자의 이해를 높인 점이 돋보인다. 특히 이전 필요성과 정부 주도 방식 전환에 따른 변화, 무안군·전남도의 입장 등을 시의성 있게 전달한 것은 종합적 판단에 도움을 주었다. 다만,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해외·타 지역 사례 비교가 더해진다면 보도의 깊이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또한 토론회 현장, 갈등 조정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면 공영방송으로서 공론장 기능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는 16일 방송될 광주MBC 특별토론회에서 정부 주도 이전 방식, 소음 피해 해소 대책, 종전 용지 무상 이전 문제 등이 다뤄질 예정인 만큼, 이를 계기로 심층 보도와 공론 형성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보도는 광주MBC가 지역 핵심 현안을 끝까지 추적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 주었다. 앞으로도 균형 잡히고 지속적인 심층 보도를 기대한다.

- 이미진 부위원장 : -최근 계속된 호우로 인해 광주에서 가장 큰 수해 피해를 본 광주 신안교 일대에 대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명 및 재산 피해 등에 대해 지역 주민으로서 마음이 아프다. 최근 몇 년간 상습 침수 지역이었음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홍수 예방시설이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는 부분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앞으로 예상하기 힘든 폭우가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지역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데 물그릇 된 광주 신안교 일대 홍수 예방시설 관련 광주MBC 보도는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며, 재난 문제 등에 있어 계속 관심과 보도를 바란다.

-<빛나는 나의 도시> 광강스 숙소 정보를 시청했다. 올해 폭염이 극성을 부리고 실제 휴가 기간이 다가오면서 광주 근교 등으로 휴가를 떠나려는 지역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우리 지역은 관광 명소가 많고 식문화가 발달하여 관광지로서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숙소가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었다. 우리 지역에서 보기 드문 한옥 숙소를 소개하여 한옥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좋아할 만한 수영장 숙소 소개도 휴가지를 고르는데 좋은 선택지를 준 것 같다. 우리 지역의 멋스러움과 아름다움, 편의시설을 갖춘 숙소를 소개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 정인영 위원 : -<시사용광로> 2025년 8월 17일 방송은 입법, 인권, 법률 전문가의 균형 잡힌 패널 구성으로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한 점이 매우 돋보였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 당사자인 이주노동자와 고용주의 목소리가 직접 담기지 않아 현장감이 다소 떨어졌고, 문제 진단에 비해 광주·전남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 제시가 부족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토론이 대담 형식으로만 진행되어 단조롭게 느껴졌는데,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나 노동 현장의 모습을 담은 사진, 관련 통계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래픽 자료 등을 좀 더 제시했다면 시청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시청자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8월 12일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전공의 모집 시작 뉴스는 지역 양대 병원의 전공의 모집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한 단신 보도로서, 사실 정보를 명확히 알려준 점은 좋았다. 다만 이 문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실제 전공의 복귀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으로 이탈한 전공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 지역 필수 의료의 현실은 어떠한지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정희 위원 : -<시사용광로> 폭우피해와 민생 회복, 자치구 상황은? 편을 시청했다. 중대 재난인 폭우피해와 이에 따른 민생 회복 상황, 그리고 광주 각 자치구의 대응 실태를 상세히 다루었는데, 시민의 관점에서 우리 동네 문제를 정확히 다루어 준다는 평가를 받았겠다. 피해 상황을 자치구별로 세분하여 보도함으로써, 일부 자치구가 추가 예산을 편성하고 응급 복구 인력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행정조치가 따른 부분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면 변화가 생긴다는 긍정적 기능을 했다고 생각한다.

-<뉴스데스크> 광주, 인공지능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국무회의 통과 보도가 관심 있었다. 광주는 AI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절실하였는데, 인공지능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고용 창출, 인재 양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확보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을 관계자, 관계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계속해 관련 내용을 보도해주길 바란다.

- 박양우 위원장 : -기타 의견으로 시청자 의견이 올라와 있다. 8월 8일 <놀라운 세시> 프로그램의 '왔구나 노래교실' 코너에서 강사와 리포터가 출연해 김미성의 '먼 훗날'을 배워봤다는 것이다. 시작부터 불협화음 이어서 듣는데 불편함이 있었다고 한다. 노래교실 전에 참가자들이 한 번이라도 들어보고 시작하는 성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준비가 안 된 노래가 청취자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사전에 준비하고 다양한 청취 층을 신경 쓰는 게 필요해 보인다.